

## 동해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개막 첫 주말 '인기'[뉴시스앵글]

등록 2025.06.17 17:03:38



[동해=뉴시스] 동해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장.(사진=동해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이순철 기자 =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라벤더 축제'가 개막 첫 주말부터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개막 첫 주말인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간 총 2만7473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기록됐다.



[동해=뉴스시스] 동해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장.(사진=동해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라벤더 축제에서 하루 최다 입장객은 8019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개막 첫날인 14일에 1만3361명, 다음 날인 15일에는 1만4112명이 입장해 작년 최고 기록 대비 각각 약 66%, 76%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동해=뉴스시스] 동해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장.(사진=동해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틀 연속으로 전년 기록을 경신하며 축제의 인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는 올해 관람객 급증의 배경으로 축제 3년차에 접어들며 쌓인 입소문, 개막 시점에 맞춰 절정을 이룬 라벤더 개화, 야간 개장 운영, 수상레저 및 네트 시설 등 체험시설 확대 등을 꼽았다.



[동해=뉴시스] 동해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장.(사진=동해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무릉별유천지 특유의 이국적인 풍경과 보랏빛으로 만개한 라벤더 정원, 야경 조명 등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해 퍼지면서 방문 수요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순기 무릉전략과장은 “라벤더 축제는 오는 22일까지, 매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며 “지금 당장 동해 무릉별유천지로 오셔서 보랏빛 라벤더 속에서 일상의 피로를 날리고, 특별한 6월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뉴시스] 동해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장.(사진=동해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동해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장.(사진=동해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